

21세기를 준비하는 문헌정보학계의 과제

구 본 영(서울여자대학교 교수 · 한국문헌정보학교수협의회 회장)

문헌정보학의 학문적 기본성격의 변화가 초래되고 있다. 문헌정보학은 초창기에 도서관학적인 성격을 주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인문과학적인 특성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점차 도서관을 중심으로 형성되는 문헌정보 현상을 인간이 만드는 사회현상의 일부로 규정하게 되면서 사회과학으로서의 문헌정보학의 위상을 구축하게 되었다. 최근 전반적인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급격한 발달에 따라 문헌정보학은 많은 분야에서 기술적인 측면을 강조하게 되었다.

가장 최근의 기술인 인터넷과 WWW, 그리고 전자적 네트워크의 잠재력은 다방면에서 드러나고 있다. 기술의 가장 지대한 영향 중 하나는 도서관의 벽을 넘어 원격으로 정보를 접근할 수 있다는 것과 전자적 환경에서 정보전문가의 업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지난 2월 1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교육부, 정보통신부,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서관 정보화 추진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정보화 중합계획에 포함된 구체적 사업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2002년까지 단계적으로 전국의 381개 모든 공공도서관과 215개 학교도서관 및 160개 문고에 디지털 자료실을 설치하여 도서관 환경을 디지털 환경으로 바꿔 나간다는 것이다. 디지털 자료실에서는 도서관이 구축한 각종 DB와 함께 CD-ROM 등 다양한 디지털 자료를 갖춘다고 한다. 또한 전국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9,700만 책의 목록과 주요 문헌 100만권의 목차를 금년 중 DB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시대에 적합하도록 프랑스, 일본의 예와 같이 국립디지털도서관의 건립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종사하는 정보전문가(사서)의 정보화 특별 교육을 실시하고 정보화 능력을 갖춘 정보전문가(사서)를 양성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문헌정보학계의 과제 역시 지식정보사회의 주역이 될 정보전문가(사서) 교육내용의 변화일 것이다. 정보전문가에게 기술의 중요성은 부인하기 어렵다. 따라서 문헌정보학의 교육은 실제적인 기술요소를 교육내용에 통합하여야 한다. 사서와 기술에 관한 논문에서 Jerry Campbell은 "우리는 정보전문직들을 위해 교육적 요구조건의 문제를 터놓고 숨김 없이 건의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헌정보학은 그 의미와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문헌정보학 전문직 교육에 대한 초점은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하고 검색하는 기술에 대해 면밀한 대처를 해야한다. 미래의 정보전문직을 준비시키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수진들은 그 분야의 최첨단을 재촉해야 한다. 컴퓨터 코스의 피상적인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심도 깊은 기술적 개념과 숙달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 없이는 정보, 지식 전달 시스템을 개념화하고 설계하고 처리하는 능력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없다. Howard Harris는 지속적인 기술의 발전을 이야기하면서 이러한 변화들을 어떻게 정보전문직에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Marilyn Miller는 기술적인 발전과 그것을 정보봉사에 접목시킬 수 있는 교육과정의 변화를 재촉하고 있다. 따라서 기술적인 변화의 도전에 대처하고 정보전문직의 실무를 위한 기술적 요소를 담고 있는 혁신적인 과목들을 도입하여 교육시켜야 할 것이다.

도서관은 사회적 차원의 커뮤니케이션 기관이다. 도서관의 궁극적인 목적은 사회의 문화를 보존, 전승, 발전시키는 전통적인 도서관의 문화적 기능과 정보전달의 개념을 중시하는 디지털도서관의 커뮤니케이션 기능이 현재와 같은 디지털환경에서는 다같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수립이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 문헌정보학 교수들의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